

우 리 의 신 념

작사 리혜정
작곡 박명성

의지적으로 (♩=92)

1. 백 두 에서 - 시작 - 된 길 세 대 를 이 으 며 설 한
 풍 과 - 불 비 속 에 서 지 켜 온 이 신 념 - 당 중 앙
 우 러 러 - 굴 세 계 간 직 한 우 리 신 념 누 가 꺾 으 라 김
 정 은 - 동 지 - 만 을 용 - 위 해 가 리 라

- 시련의 천만산악 헤쳐넘으며
역사의 돌풍속에서 다져온 이 신념
당중앙 따라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앞길 누가 막으랴
김정은동지 따라 끝까지 가리라
- 우리 심장 하나이듯이 신념은 하나뿐
대를 이어 명멸처럼 지키여가리라
당중앙 두리에 천만이 뭉쳐진
우리 힘을 누가 당하랴
김정은동지 따라 승리만 펼치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김 팔 라 우 간 다 공 화 국 대 통 령
요 웨 리 카 구 다 무 세 베 니 카 하

나는 우간다전국항쟁운동승리 30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귀국정부와 인민이 당신의 올바른 지도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적단결과 사회경제적진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인 당신이 건강하여 귀국인민의 번영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 105(2016)년 1월 22일 평 양

첫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한 소식은 지금도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울려퍼지는 감격과 환희를 더해 준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 바로 여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열의가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사대외세외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5천년민족사에 특기할 사연

천만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새겨지는 신념의 글발

지난 2년간 수많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마두산혁명전적지 참관

은 나라에 우리 당의 혁명사상,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기 위한 열풍이 새겨져 휘몰아치는 가운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철의 의지를 역세게 심어주는 마두산혁명전적지로 각계층 군중들이 찾아오고있다.

주제 103(2014)년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김정은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시며 천만군민이 자기들의 피를 심장마다에 수렴당파라 열전만리를 헤쳐온 항일혁명성령들이 지녔던 억척분들의 혁명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해주시었다.

지난 2년간 인민군부대들과 김일성고급당학교, 김일성종합대학, 남동청년화학생기업소, 안주시공공장,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을 비롯한 940여개 단위에서 수많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이곳을 참관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정신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파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마두산혁명전적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조국해방적과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식민지인종해방투쟁의 새시대를 개척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구로문헌보존교양실을 찾은 참관자들은 항일대전의 나날 백두산호랑이로 명성떨치시며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시던 청년장군의 귀환한 위인상이 빛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명제를 우리러도 어머니수령님 이시야말로 천리해안의 예지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심을 가슴 깊이 체득하였다.

마두산, 상산, 전산, 특색산일명들로 꾸러진 안주지구 비밀근저에 숨겨진 혁명의 1세대의 피와 얼이 깃든 혁명적구호문헌들을 길은 감명속에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백두산3대장군들을 백옥같은 총정의 한마음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혁명정신들의 고귀한 사상정신세계를 새겨안았다.

그들은 조국해방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의 자강력제일주의를 적극 지지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영국조선정치연구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 영국조선친선협회가 열마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들에 대하여 총화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지난해 하늘에

서는 조선인민이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조선로동계급이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등 사회주의건설에서 많은 성과들이 달성되었다.

참으로 2015년은 조선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방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적으로 열어나온 승리의 한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진기를 열어나가자!》를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목표로 제시하시었다.

또한 사대와 외세외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살리는 길이라고 건설의 활로를 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여기에는 참으로 위대한 전리가 담겨져있다.

우리것이 제일, 우리식이 제일

우 리 현 수 님 높 이 추 켜 드 신 자 강 력 제 일 주 의 가 안 이 온 고 귀 한 결 실 인 것 이 다.

시 대 와 력 사 가 전 진 하 는 데 따 라 혁 명 의 환 경 과 조 건 은 달 라 질 수 있 지 만 제 함 을 외 자 력 으 로 모 든 문 제 를 풀 어 나 가 야 한 다 고 혁 명 의 원 리 는 변 할 수 없 다.

더 무 기 나 라 와 민 족 들 간 의 국 령 경 경 이 지 별 하 게 벌 어 지 고 현 수 님 들 의 고 밀 압 살 책 동 이 더 욱 악 말 해 지 는 속 데 서 우 리 가 세 계 를 앞 서 나 갈 수 있 는 유 일 한 길 은 오 직 자 강 의 길 뿐 이 다.

하 기 에 천 만 군 민 은 다 시 한 번 심 장 에 쏘 아 박 는 다.

자 강 력 은 우 리 의 생 명 이 라 는 것 을, 우 리 것 이 제 일, 우 리 식 이 제 일 이 라 는 것 을,

우 리 현 수 님 높 이 추 켜 드 신 자 강 력 제 일 주 의 가 안 이 온 고 귀 한 결 실 인 것 이 다.

시 대 와 력 사 가 전 진 하 는 데 따 라 혁 명 의 환 경 과 조 건 은 달 라 질 수 있 지 만 제 함 을 외 자 력 으 로 모 든 문 제 를 풀 어 나 가 야 한 다 고 혁 명 의 원 리 는 변 할 수 없 다.

더 무 기 나 라 와 민 족 들 간 의 국 령 경 경 이 지 별 하 게 벌 어 지 고 현 수 님 들 의 고 밀 압 살 책 동 이 더 욱 악 말 해 지 는 속 데 서 우 리 가 세 계 를 앞 서 나 갈 수 있 는 유 일 한 길 은 오 직 자 강 의 길 뿐 이 다.

하 기 에 천 만 군 민 은 다 시 한 번 심 장 에 쏘 아 박 는 다.

자 강 력 은 우 리 의 생 명 이 라 는 것 을, 우 리 것 이 제 일, 우 리 식 이 제 일 이 라 는 것 을,

인민들 속에서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에는 우리도 조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 리 들 은 항 상 인 민 들 과 교 락 을 감 지 하 시 려 는 어 버 이 수 령 님 의 높 은 뜻 을 가슴 깊 이 느 낄 때 머 리 를 숙 이 었 다.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 는 몸 소 추 리 나 무 에 농 약 도 뿌 리 고 남 새 발 을 가 루 시 는 일 을 거 의 일 파 처 럼 하 시 었 다.

전 날 밤 에 아 무 리 늦 게 주 루 다 하 더 라 도 그 께 께 서 는 언 세 나 와 같이 아 침 일 지 기 일 어 나 시 어 산 보 와 독 서 를 끝 내 시 고 는 포 전 으 로 나 가 곤 하 시 었 다.

1951년 3월 25일 아침이었다.

그 날 도 우 리 는 어 버 이 수 령 님 을 따 라 발 에 나 가 일 을 하 고 있 었 다.

한 장 일 을 하 고 있 을 때 었 다.

《먹 수 동 무, 졸 쉬 었 다 하 지 않 겠 소?》

어 버 이 수 령 님 의 말 씀 에 나 는 그 이 의 가 개 이 에 삼 지 무 를 깔 고 앉 았 다.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 는 나 를 돌 아 보 시 며 말 씀 하 시 었 다.

《먹 수 동 무 는 일 을 하 면 서 무 슌 생 각 을 하 겠 소?》

나 는 이 때 딱 히 생 각 한 것 이 없 었 으 로 영 르 대 답 을 못 했 다. 머 킵 기 리 고 있 는 나 의 심 정 을 알아 보 신 듯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 는 빙 그 데 웃 으 시 며 말 씀 을 이 시 었 다.

나 는 일 제 놀 음 과 싸 우 면 때 의 일 을 생 각 했 소.

장 백 현 에 는 우 리 유 적 대 원 들 의 밀 영 이 많 았 소. 거 기 서 우 리 들 은 때 일 과 같 이 적 과 싸 우 면 서 도 한 번 로 는 농 사 를 지 었 소. 끈 내 한 조 건 이 많 은 데 다 가 땅 도 매우 척박 했 소.

그 러 나 우 리 유 적 대 원 들 은 적 과 싸 우 는 기 세 로 전 투 의 여 가 를 라 시 땅 을 갈 아 엮 고 거 기 에 남 새 도 심 고

우 리 가 마 음 에 도 착 하 였 을 때 는 새 별 이 반 켜 는 이 르 는 새 비 었 다.

나 는 부 락 에 도 착 하 지 마 자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 들어 가 신 밭 을 미 려 하 고 리 녀 맹 위 원 장 의 집 을 찾 아 갔 다.

네 가 그 집 들 으 로 오 는 때 들 어 가 는 는 데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 는 먹 수 동 무, 집 주 인 을 깨 우 시 마 오. 단 장 을 자 는 사 람 을 깨 우 면 얼 마 나 관 해 겠 소. 이 제 얼 마 후 이 번 날 이 밝 았 소. 나 주 인 이 얼 어 ल 때 까 지 우 리 는 마 당 에 앉 아 쉬 기 요 라고 하 시 며 나 를 만 유 하 시 는 것 이 었 다.

《여 기 서 어 령 게.》

괜찮 소. 마 당 에 앉 아 이 령 게 아 침 꿈 기 를 미 시 는 것 이 더 욱 좋 소. ... 췌 단 이 나 얼 어 오 오.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 는 웃 으 시 며 말 씀 하 시 었 다.

나 는 오 도 가 도 못 하 고 그 지 리 에 서 만 있 었 다.

그 이 께 서 는 주 변 에 있 는 절 단 우 에 앉 으 시 며 우 리 들 에 게 모 두 와 앉 고 하 시 었 다.

이 직 새 낀 새 비 바람 이 키 낫 은 수 수 바 자 를 넘어 마 당 으 로 불 러 들 었 다. 나 는 절 단 우 에 앉 아 이 령 게 생 각 했 다. (잠 지 는 인 민 들 을 깨 울 고 넘 버 리 하 시 어 복 민 의 일 복 한 야 망 을 한 세 서 새 우 리 들 에 도 곤 히 잠 은 대 원 들 을 한 시 간 이 라 도 더 재 우 기 위 하 여 이 불 루 지 저 불 루 지 돌 아 보 시 면 서 꺼 지 가 는 불 루 지 에 나 무 를 지 켜 주 었 다 는 김 일 성 수 상 서 지 가 아 니 신 가.)

어 들 은 서 서 히 가 서 지 었 다. 이 욱 고 집 주 인 이 일 어 나 밖 으 로 나 왔 다. 눈 을 비 비 며 마 당 에 내 리 서

당의 크나큰 믿음에 새 기록, 새 기적창조로 보답하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아안고 폭풍처럼 달리는 상원로동계급

령도자의 믿음은 우리의 승리

끝지의 세멘트생산기 상원 세멘트연합기업소에 걱정의 파도가 일렁이고 새 기적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축하전문에 접하고 용암마냥 분출한 기업소로동계급과 일군들의 정신력에 떠받들려 상원 땅이 들끓어 기복되는 생산실적은 참으로 경이적이다.

상원석회석광산에서 편이온 대발파로 보통때보다 3배의 광량을 확보.

화천탄광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8배의 석탄생산 실적 기록.

삼청광산 광부들 3일동안에 200여의 광석을 증산.

련합기업소적으로 매일 120%이상의 세멘트를 생산.

들리는 소식마다에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려는 이 곳 로동계급의 비등된 열의가 확연히 엿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력기하여 새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18일 련합기업소책임 일군들의 발걸음은 드바쁘게

이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축하전문을 종업원들에게 빠짐없이 전달한 일군들은 그걸로 생산자들과 함께 전투에 진입하였다.

사회주의문명의 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주춧돌이 되리라.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축하전문을 받아안고 신념을 더욱 조이고나선 일군들의 피끓는 결의이다.

겨울철의 불리한 생산조건을 극복하며 올해 첫발을 힘있게 할 목표는 참으로 아름답다. 하지만 책임일군으로부터 로동자에게 이르기까지 당정책을 위전의 기수가 되려는 자각은 모두의 심장마다에 한껏 넘쳐나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랴.

우나라가 수 소산시험성공 소식으로 새차게 끓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당의 최상목표의 믿음을 받아안은 상원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다.

이들에게 있어 모든 설비의 정상가동은 올해에 또다

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주타격고리로 되고있다. 이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모든 일터는 격전장으로 돌변하였다. 선행공정인 조합원로직장의 대형분쇄기가 만가동을 걸고 소성로에서 생산량이 전례없이 높아졌다.

상원의 열도이자 조국번영의 거센 숨결이다.

이런 의지를 안고 혁신의 동풍을 울려가는 전투원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날마다 기록되는 생산실적은 그 얼마나 호풍호전인가.

지난 18일부터 세멘트직장에서 수천의 부가물이 확보되고

세멘트분쇄기의 능력도 제고된 속도에 3일동안에만도 계획보다 수천의 세멘트가 증산되었다. 상원석회석광산과 화천탄광, 삼청광산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에 모든 단위에서 지난 19일부터 조일후 보기 드문 생산실적이 기록되었다.

상원의 막동을 높여가는 주인공들이 어찌 그들뿐이라.

명당지구의 수백명에 달하는 가족들도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매일같이 지원물자를 안고 현장으로 향하는 그들의 소행은 생산물격전에 떨쳐나선 전투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상원땅에 메아리치는 결사판첩의 함성은 병도자의 믿음에 화답해나선 이 곳 로동계급의 정신력이야말로 모든 승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렇다. 우리 당의 크나큰 평가와 사랑을 받아안고 올해에 다시금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하려는 상원로동계급과 일군들의 총정과 위훈은 자욱자욱은 당 제7차대회를 향해 줄달음치는 총진군길위에 큼직하게 새겨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지원철 사진 본사기자 리진영

삼청광산 일군들과 로동계급

요즘 삼청광산의 일적 기록수행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일심삼광에서 광산이 생긴 이래 전례드문 기록이 계속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축하전문을 받아안고 올해에 다시금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하려는 상원로동계급과 일군들의 총정과 위훈은 자욱자욱은 당 제7차대회를 향해 줄달음치는 총진군길위에 큼직하게 새겨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지원철 사진 본사기자 리진영

끊임없이 새 기록창조에도

요즘 삼청광산의 일적 기록수행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일심삼광에서 광산이 생긴 이래 전례드문 기록이 계속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축하전문을 받아안고 올해에 다시금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하려는 상원로동계급과 일군들의 총정과 위훈은 자욱자욱은 당 제7차대회를 향해 줄달음치는 총진군길위에 큼직하게 새겨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지원철 사진 본사기자 리진영

새 기록창조에도

요즘 삼청광산의 일적 기록수행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일심삼광에서 광산이 생긴 이래 전례드문 기록이 계속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축하전문을 받아안고 올해에 다시금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하려는 상원로동계급과 일군들의 총정과 위훈은 자욱자욱은 당 제7차대회를 향해 줄달음치는 총진군길위에 큼직하게 새겨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지원철 사진 본사기자 리진영



지하막장에도 애국의 뿌리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축하전문에 접한 화천탄광 서동경 탄부들의 생산열의는 비상히 양양된 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날부터 경일군들에게는 한가지 관심거리가 생겼다. 탄부들이 자기 교대일에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아 좀처럼 막장을 드러 하지 않았

지난 4일 12시, 많은 량의 소공구와 후방물자, 석탄생산용자재를 가득 실은 자동차행렬이 화천탄광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과감한 총공격전에 들어선 이곳 탄부들의 투쟁을 고무해주는 축하방송까지 격조높이 울리며 탄광을 찾은 주인공들은 다름이 없이 련합기업소 각 단위 일군들이었다.

청춘의 심장은 불보다 뜨겁다

최근 기운이 급격히 내려가는 겨울철 조건은 화천탄광의 석탄생산에 적지 않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특히 여러 강들의 입구 100m 구간마다에 얼음이 형성되어 석탄운반에 지장을 줄수 있는 위험이 시시각각 위태로워지고있다. 하지만 탄부들은 자연의 광활앞에서 주춤하거나 물러서지 않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

다음 교대를 위하여

기때문이었다. 교대를 마친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 휴식할것을 명명했지만 스스로는 다음교대생원이 되어 연장직업을 하는 탄부들은 오히려 계속 높아졌다.

재정경, 청년경, 전진경, 8.17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마음속으로 꿰뚫어 자기 교대

탄광일군들, 굴진, 채탄소 대 당소일군들과 골계 손을 잡고 새해 첫 전투소식도 듣고 생산성과를 놓고 축하의 인사도 주고받은 모두의 열광이다.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마음속으로 꿰뚫어 자기 교대

전선에서 전선으로!

세멘트생산을 위해 한전료에 선 전투원들의 마음과 마음은 날마다, 시간마다 이렇듯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대고조의 선봉에서 우리를 찾으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련합기업소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 주신 축하전문을 받아안고 새 기록창조의 불길은 세멘트생산의 기본원료로 장단위인 상원석회석광산에서도 새창조 타고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만가물담가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쭉쳐들고나 가야 합니다.》

여러날째 계속되는 낮은 기온과 로천제광장에 불어치는 뿔뿔 바람...

그렇듯 생산조건이 불리한 속에서 굴착기와 침착기, 물진기들의 가동음을 한탄히 보장하는 것은 광산적인 재광실적을 높이기 위한 급선무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양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리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기에 이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소한 침체와 담보도 없이 습보로 내달리고있다.

당이 안겨준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을 발휘해가는 광부들과 파로천제광장에 불어치는 뿔뿔 바람... 그날 생산조건이 불리한 속에서 굴착기와 침착기, 물진기들의 가동음을 한탄히 보장하는 것은 광산적인 재광실적을 높이기 위한 급선무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양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리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기에 이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소한 침체와 담보도 없이 습보로 내달리고있다.

당이 안겨준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을 발휘해가는 광부들과 파로천제광장에 불어치는 뿔뿔 바람...

상원 석회석 광산에서

명정신을 발휘해가는 광부들과 파로천제광장에 불어치는 뿔뿔 바람... 그날 생산조건이 불리한 속에서 굴착기와 침착기, 물진기들의 가동음을 한탄히 보장하는 것은 광산적인 재광실적을 높이기 위한 급선무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양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리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기에 이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소한 침체와 담보도 없이 습보로 내달리고있다.

당이 안겨준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을 발휘해가는 광부들과 파로천제광장에 불어치는 뿔뿔 바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현지료해

박봉주총리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

당인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전의 불길높이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여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이온 대대적 기적창조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완수하기 위한 투쟁

에 한사없이 떨쳐나섰다.

총리는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기업소의 여러 차례를 돌아보았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총리는 백두산영웅전년3호발진소에 보내준 발전설비생산을

2 면에서 계속

농민들은 모두가 새 힘이 솟는듯 결사적 열정을 다그쳤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민들과 함께 일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농사를 잘 지어야 미제강도놈들을 때려부시고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고 차근차근 말씀하시었다.

《오늘 심랑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랑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경관인 인민생활을 안정시킬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심랑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심랑증산을 위한 투쟁에 농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농민들이 뺨쪽 새가 울기 시작해야 봄밭갈이를 하였는데 이제는 파종을 좀더 일찍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밭종이 제대로 될수 있고 곡식이 잘 어물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보답을 하는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청장년들이 거의 다 전선에 나가고 녀성들과 노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농촌의 주인은 녀성들이며 녀성들이 일을 더 잘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보답도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녀성들속에서 보답이 더 많이 키워야 하겠읍니다.

농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칠새라 명심해 듣고있습니다.

한 일은 많지만 협동조합을

3 면에서 계속

농민들은 모두가 새 힘이 솟는듯 결사적 열정을 다그쳤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민들과 함께 일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농사를 잘 지어야 미제강도놈들을 때려부시고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고 차근차근 말씀하시었다.

《오늘 심랑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랑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경관인 인민생활을 안정시킬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심랑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심랑증산을 위한 투쟁에 농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농민들이 뺨쪽 새가 울기 시작해야 봄밭갈이를 하였는데 이제는 파종을 좀더 일찍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밭종이 제대로 될수 있고 곡식이 잘 어물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보답을 하는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청장년들이 거의 다 전선에 나가고 녀성들과 노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농촌의 주인은 녀성들이며 녀성들이 일을 더 잘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보답도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녀성들속에서 보답이 더 많이 키워야 하겠읍니다.

농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칠새라 명심해 듣고있습니다.

한 일은 많지만 협동조합을

4 면에서 계속

농민들은 모두가 새 힘이 솟는듯 결사적 열정을 다그쳤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민들과 함께 일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농사를 잘 지어야 미제강도놈들을 때려부시고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고 차근차근 말씀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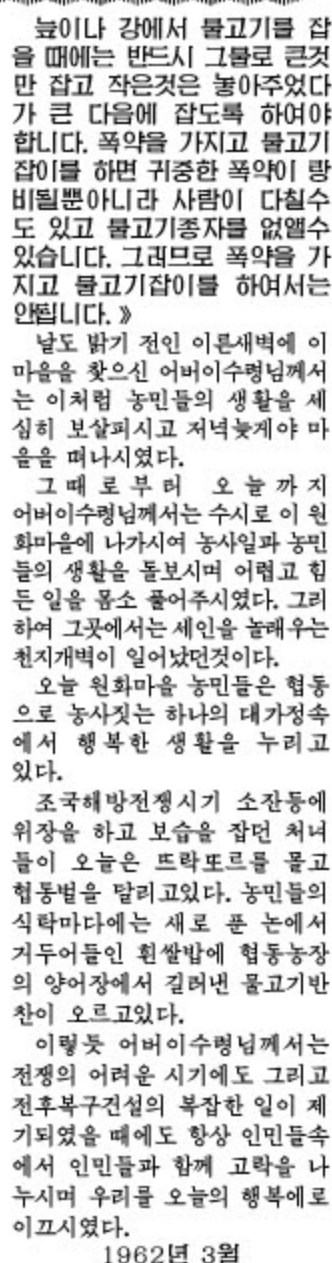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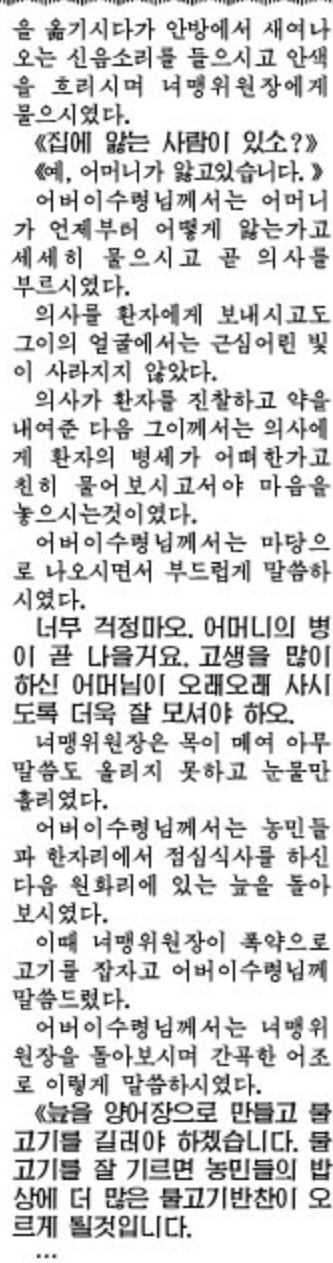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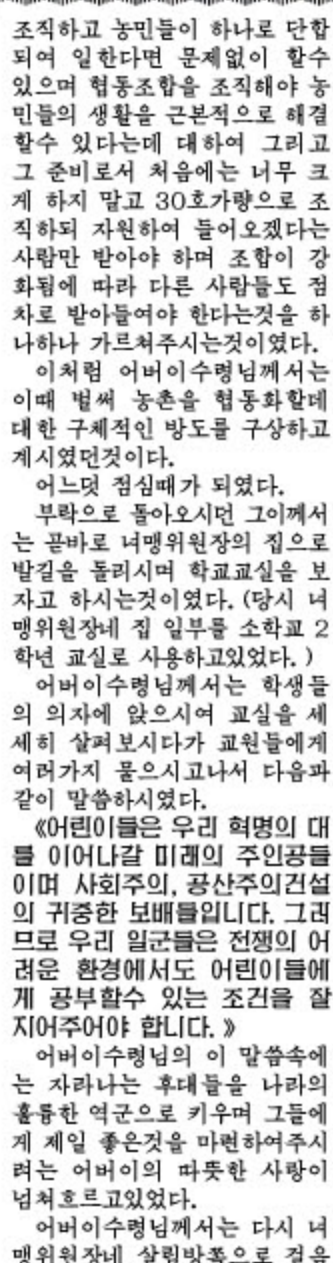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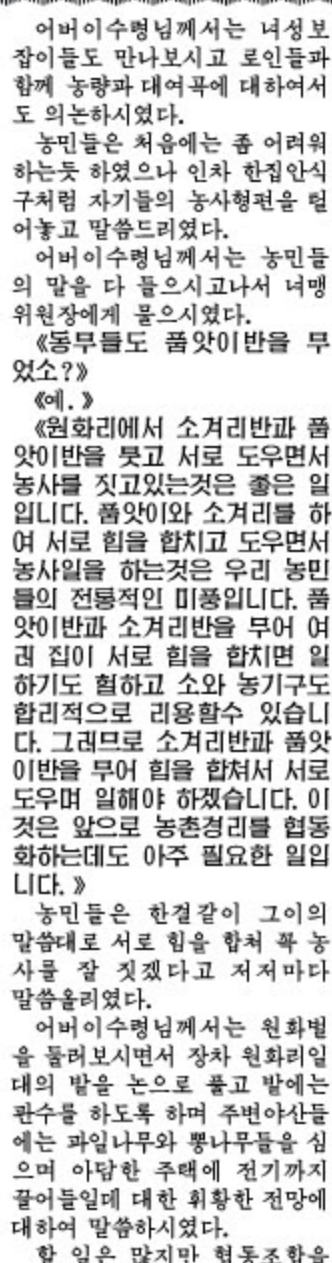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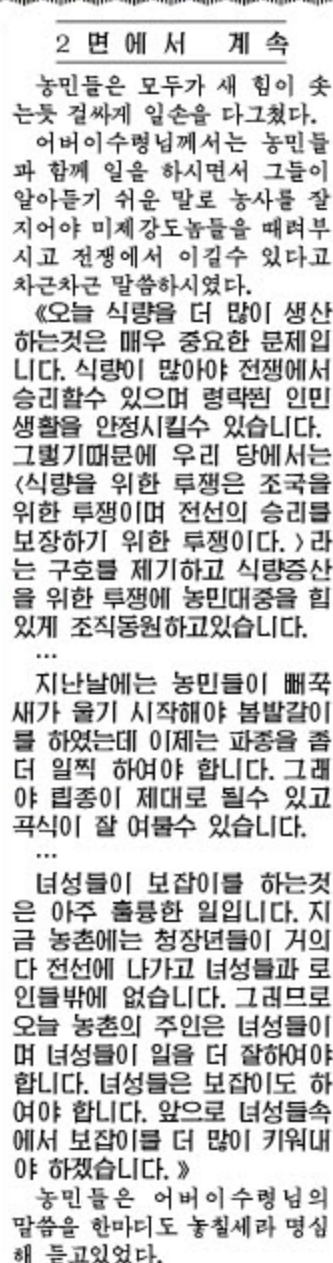
《오늘 심랑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랑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경관인 인민생활을 안정시킬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심랑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심랑증산을 위한 투쟁에 농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농민들이 뺨쪽 새가 울기 시작해야 봄밭갈이를 하였는데 이제는 파종을 좀더 일찍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밭종이 제대로 될수 있고 곡식이 잘 어물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보답을 하는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청장년들이 거의 다 전선에 나가고 녀성들과 노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농촌의 주인은 녀성들이며 녀성들이 일을 더 잘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보답도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녀성들속에서 보답이 더 많이 키워야 하겠읍니다.

농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칠새라 명심해 듣고있습니다.

한 일은 많지만 협동조합을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올해 알곡생산계획수행의 지름길을 열자

포전마다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농사작전

피현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보고 새해농사치비에 펼쳐나신 피현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었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 의지와 불꽃은 현실속에 들어가 포전마다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농사작전을 펼쳐가고있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일보가 돋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침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원칙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량도 수확고도 최대로 높이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전방을 일으켜 사회주의호전적 제1세대 제1선항호를 지켜 선 본분을 다해나가지, 이것이 크나큰 공지와 환희로 충만된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심정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모든 포전에서 옥수수출몰을 늘수 있도록 기술적지도의 과학성을 보장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분석해볼수록 미흡한 점들이 없지 않았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포전마다 다수확을 낼수 있는 방도를 찾아 실현에 옮겼다.

그중의 하나가 이미 경영위원회에서 리용하고있는 포전자르기였다. 이 자르기지를 리용하여 지난 시기보다 농사에 대한 기술적지도에서 과학화수준을 훨씬 높일수 있는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농사정형을 분석해보니 이 포전자르기지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이 포전자르기지에는 한개 포전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현지가 나가 따져보면 보다 작은 5~6개의 포전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이것은 매 포전에 따르는 영농농정비기술적지도에서 정확성을 보장하는데 지장을 주게 하였다.

이 사실을 놓고 일군들은 이런 결론을 찾게 되었다.

농사지도를 일군들은 높이자면 일군들이 들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제기되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맞는 과학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다.

즉시 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모든 포전에 대한 과학적인 자

료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혁신적으로 밀고나갔다. 5개 지기로 나누어 진행된 분포장이상 일군들의 기술준비에서는 작은 포전에 이르러까지 면적, 지역상, 토양양액이 조성, 유묘포심 등을 조사장악하여 자르기지를 구축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알려주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분포, 작업반들에서 여기에 기초하여 포전별토양특성을 알고 그에 맞는 기술적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결과 군안의 구석구석 포전에 이르러까지 과학기술적지도가 정확히 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것이든 매 포전에서 다수확을 담보할수 있었는가. 아니었다. 일군들이 여기서 놓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작물과 품종배치를 현실적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이곳 일군들이 얼마나 빈틈없이 작정하였는가는 면적의 5%정도를 차지하는 맹종지에 배지할 품종을 주의를 들린 사실을 놓고서도 알수 있다.

여기에 심기기로 한 품종은 생육속도나 온도나 비교적 높은 농종이었다. 지난해처럼 가을과 겨울이 높은 온도에서는 맹종지에서도 이 품종의 수확이 높아질것은 응당하였다.

하지만 발버린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밭벼도 벼종종이므로 살초제피해를 받지 않기때문이었다.

일군들은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당에서는 작물배치에 지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하야 한다고 얼마나 강조하였는가.

교훈을 찾고 분발해나신 일군들은 이런 땅에 발버를 심기로 하고 종자확보를 비롯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결국 군에서는 여기서만도 지난해보다 450%정도의 벼증수예비를 찾아낼수 있었다.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당정책적으로 맞게 모든 포전에서 최대수출을 낼수 있는 열의를 찾아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신심에 넘쳐 농사치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집중은 람조류생물활성피를 더 많이 생산하고 소소피를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었다.

이군의 경험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일군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분석하고 그에 맞는 과학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때 모든 포전에서 다수확을 담보할수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하지만 올해에 많은 비가 내리던 해비침들이 떨어져 이삭이 폐고 어루는데 지장을 받아 정보량 알곡생산량이 줄어들수 있었다.

과학적인 품종배치에 알곡생산의 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한 일군들이 찾은 방도는 이미 실지로 하였던 품종보다 생육속도가 100%정도 낮고 맹종에 견디는 힘이 센 중간종을 선택하는것이였다. 이렇게 되면 맹종전매에 의해서 정보량 2.5배상의 알곡을 증수할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시기 군에서는 밭에 만든 벼모판자리에 강병이를 심어있는 정보량 수출을 높일수 없었던 실정이었다. 이 땅에서 수확이 안된다고 하면서 소출이 높지 못했었다는 용담한것으로 여기고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중정협동농장에서 이런 포전에 어느 한 품종의 발버를 심어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정보량 5배상의 수출을 냈다.

여기에 주목을 들린 일군들은 그 포전들의 토양분석자료를 다시 검토하였다. 결과 벼모판자리에 리용된 살초제의 성분은 일부 남아있었다. 이것이 강병이생육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것이였다.

하지만 발버린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밭벼도 벼종종이므로 살초제피해를 받지 않기때문이었다.

일군들은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당에서는 작물배치에 지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하야 한다고 얼마나 강조하였는가.

교훈을 찾고 분발해나신 일군들은 이런 땅에 발버를 심기로 하고 종자확보를 비롯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결국 군에서는 여기서만도 지난해보다 450%정도의 벼증수예비를 찾아낼수 있었다.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당정책적으로 맞게 모든 포전에서 최대수출을 낼수 있는 열의를 찾아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신심에 넘쳐 농사치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집중은 람조류생물활성피를 더 많이 생산하고 소소피를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었다.

이군의 경험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일군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분석하고 그에 맞는 과학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때 모든 포전에서 다수확을 담보할수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신천군 장재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보고 새해농사치비에 펼쳐나신 신천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었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 의지와 불꽃은 현실속에 들어가 포전마다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농사작전을 펼쳐가고있는 신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일보가 돋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침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원칙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량도 수확고도 최대로 높이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전방을 일으켜 사회주의호전적 제1세대 제1선항호를 지켜 선 본분을 다해나가지, 이것이 크나큰 공지와 환희로 충만된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심정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모든 포전에서 옥수수출몰을 늘수 있도록 기술적지도의 과학성을 보장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종자외복제도임이 자 알곡증산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보고 새해농사치비에 펼쳐나신 신천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었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 의지와 불꽃은 현실속에 들어가 포전마다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농사작전을 펼쳐가고있는 신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일보가 돋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침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원칙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량도 수확고도 최대로 높이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전방을 일으켜 사회주의호전적 제1세대 제1선항호를 지켜 선 본분을 다해나가지, 이것이 크나큰 공지와 환희로 충만된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심정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모든 포전에서 옥수수출몰을 늘수 있도록 기술적지도의 과학성을 보장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방선군비료생산을 왜 증시하였는가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보고 새해농사치비에 펼쳐나신 방선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었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 의지와 불꽃은 현실속에 들어가 포전마다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농사작전을 펼쳐가고있는 방선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일보가 돋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침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원칙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량도 수확고도 최대로 높이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전방을 일으켜 사회주의호전적 제1세대 제1선항호를 지켜 선 본분을 다해나가지, 이것이 크나큰 공지와 환희로 충만된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심정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모든 포전에서 옥수수출몰을 늘수 있도록 기술적지도의 과학성을 보장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순천시 평리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보고 새해농사치비에 펼쳐나신 순천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었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 의지와 불꽃은 현실속에 들어가 포전마다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농사작전을 펼쳐가고있는 순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일보가 돋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침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원칙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량도 수확고도 최대로 높이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전방을 일으켜 사회주의호전적 제1세대 제1선항호를 지켜 선 본분을 다해나가지, 이것이 크나큰 공지와 환희로 충만된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심정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모든 포전에서 옥수수출몰을 늘수 있도록 기술적지도의 과학성을 보장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화학비료와 맞먹는 수출을 낸 대용비료

화학비료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교를 주는 하나의 사안이 있다.

새해부터 대용비료생산전투로 돌입하고있는 평산군 평공협동농장 제5작업반의 지난해 농사정형이다.

이 작업반에서는 이삭비료로 50kg정도의 화학비료를 주었는데 가을의 결실은 아주 좋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호전적 제1세대 제1선항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방을 일으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논벼나 강병이는 이삭비료를 시기에 질소, 칼리, 린,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원소들에 대한 요구성이 높다. 이것을 농작물이 충분히 흡수해야 이삭당 알수, 여름물, 천일무게가 높아질수 있다.

작업반장의 말에 의하면 바로 이공제와 전기를 리용하여 만든 대용비료에는 이런 영양원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삭비료가 부족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평산군 통공협동농장 제5작업반에서

모두가 이런 신념을 안고 신심에 넘쳐 새해농사치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특히 이 대용비료를 많이 생산할수 있도록 제, 전기를 등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농사치비의 중요한 항목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작업반적으로

중요인들은 고집적인 끝에 이곳에서 나오는 재를 리용하여 만든 대용비료를 이삭비료로 주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적극 받아들였다.

생산방법은 간단하여 어디서나 쉽게 만들수 있었다.

여름철에 재와 전기를 적은 량의 노소, 소금을 골고루 섞어 무쳐놓았다. 여기에 질소성분의 손실을 막을수 있도록 박막을 덮어놓고 일정한 온도를 보장하여 며칠간 놓아두면 대용비료가 되었다. 중요한것은 박막을 벗긴 다음 인자 대용비료를 리용하는것이였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기때문이다.

결과 화학비료 200~300kg을 준것과 맞먹는 효과를 낸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삭당 알수, 여름물, 천일무게가 높아졌었다.

이 성과를 이룩 작업반들에게 이런 전례를 다시금 새겨주었다.

자강적이지 알곡증산을 담보하는 근본원칙이다. 이것을 배에 쏘아박고 난관을 맞받아나갈 때 올해농사에서 통창은 문제였다.

농업과학기술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농업과학기술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순천시 평리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보고 새해농사치비에 펼쳐나신 순천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었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 의지와 불꽃은 현실속에 들어가 포전마다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농사작전을 펼쳐가고있는 순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일보가 돋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침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원칙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량도 수확고도 최대로 높이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전방을 일으켜 사회주의호전적 제1세대 제1선항호를 지켜 선 본분을 다해나가지, 이것이 크나큰 공지와 환희로 충만된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심정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모든 포전에서 옥수수출몰을 늘수 있도록 기술적지도의 과학성을 보장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방선군비료생산을 왜 증시하였는가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보고 새해농사치비에 펼쳐나신 방선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었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 의지와 불꽃은 현실속에 들어가 포전마다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농사작전을 펼쳐가고있는 방선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일보가 돋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침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원칙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량도 수확고도 최대로 높이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전방을 일으켜 사회주의호전적 제1세대 제1선항호를 지켜 선 본분을 다해나가지, 이것이 크나큰 공지와 환희로 충만된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심정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모든 포전에서 옥수수출몰을 늘수 있도록 기술적지도의 과학성을 보장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순천시 평리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보고 새해농사치비에 펼쳐나신 순천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었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 의지와 불꽃은 현실속에 들어가 포전마다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농사작전을 펼쳐가고있는 순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일보가 돋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침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원칙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량도 수확고도 최대로 높이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전방을 일으켜 사회주의호전적 제1세대 제1선항호를 지켜 선 본분을 다해나가지, 이것이 크나큰 공지와 환희로 충만된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심정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모든 포전에서 옥수수출몰을 늘수 있도록 기술적지도의 과학성을 보장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순천시 평리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보고 새해농사치비에 펼쳐나신 순천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었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 의지와 불꽃은 현실속에 들어가 포전마다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농사작전을 펼쳐가고있는 순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일보가 돋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침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원칙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량도 수확고도 최대로 높이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전방을 일으켜 사회주의호전적 제1세대 제1선항호를 지켜 선 본분을 다해나가지, 이것이 크나큰 공지와 환희로 충만된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심정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모든 포전에서 옥수수출몰을 늘수 있도록 기술적지도의 과학성을 보장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순천시 평리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보고 새해농사치비에 펼쳐나신 순천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었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 의지와 불꽃은 현실속에 들어가 포전마다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농사작전을 펼쳐가고있는 순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일보가 돋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침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원칙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량도 수확고도 최대로 높이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전방을 일으켜 사회주의호전적 제1세대 제1선항호를 지켜 선 본분을 다해나가지, 이것이 크나큰 공지와 환희로 충만된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심정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모든 포전에서 옥수수출몰을 늘수 있도록 기술적지도의 과학성을 보장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구바대사관 여성들 평양산원 참관

구바대사관 57쪽에 즈음하여 주 구바공화국대사관 여성들이 25일 평양산원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여성들과 후대에 계를 물려주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전하는 종합적인

로동농사지인 산원의 치료실, 입원실들과 유선종양연구소를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구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부인 니디아 에스페란사 리베레는 강상복에 평양산원의 융장한 건축술과 높은 의

로동농사지인 산원의 치료실, 입원실들과 유선종양연구소

로동농사지인 산원의 치료실, 입원실들과 유선종양연구소

학습공작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면

학습공작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면

최근 남포시버섯공장의 일군들과

최근 남포시버섯공장의 일군들과

인원이 있었다고 보았다.

인원이 있었다고 보았다.

3대의 공기조화기의 성능을

3대의 공기조화기의 성능을

6월달의 생산계획을

6월달의 생산계획을

공정에서는 제배해동들마다

공정에서는 제배해동들마다

백두산으로 달려가는 마음

백두산으로 달려가는 마음

복합의 강추위에서도

복합의 강추위에서도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